

광주·전남 물가 상승분 10%, 이상기후가 높였다

한은 보고서...광주 이상기후 지수 2.10 전국 4번째로 높아 폭우 농작물 작황 부진 물가 상승 견인, 폭염 산업생산성 저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물가 상승분 10% 가량은 이상기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폭염으로 인한 노동성 저하 등이 산업생산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한국은행(한은)의 분석 결과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이상기후지수

(CRI)는 2.10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CRI는 5가지 이상기후 요인(이상고온-이상저온·강수량·가뭄·해수면 높이)을 기준으로 삼아 이상기후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16개 시·도의 5가지 요인을 구한 뒤 기준기간(1980~2000년) 대비 표준화한 값의 평균을 가리킨다.

광주시의 이상기후 정도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 등 지역 성장 저하 및

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광주시는 이상기후 5가지 요인 가운데 이상고온, 강수량, 해수면높이 CRI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CRI는 1.46으로 충남(1.17), 울산(1.32), 경남(1.38)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의 경우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마, 태풍 등에 의한 강수량 부문에서는 0.04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1~2023년의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산업생산 하락 및 물가

상승에 일부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상기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한 1년 뒤 산업생산 증가율이 0.6%포인트(p) 떨어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상기후 발생 3개월 뒤 0.03%p 상승했다.

특히 이상기후는 농업·농림업 및 건설업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후 발생 뒤 농림업 성장률이 1.1%p 떨어졌고, 건설업 성장률은 0.4%p 하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이상기후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 한은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확대

에 따라 이상기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물가 품목별로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실류 물가가 0.4%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채소류(0.32%p ↑), 식료품(0.18%p ↑)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지역경제 및 물가상승 등에 미치는 영향력 및 지속성은 과거(1980~2000년)보다 최근(2001~2023년) 들어 시기보다 최근(2001~2023년) 들어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 부문이 10% 가량을 차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현상 부회장, HS효성 최대주주로...조현준 회장과 주식 맞교환

지분을 22.05%→31.96%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HS효성 지분을 31.96%까지 늘리며 최대주주로 올랐다. 조 부회장은 형인 조현준 회장 회장을 통해 지분을 늘렸다. 조현준, 조현상 두 형제 사이의 지분 정리가 끝나면서 형제 간 독립 경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S효성은 조현준 회장 회장이 갖고 있던 HS효성 보통주 36만9176주를 조 부회장이 소유한 ㈜효성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보통주 40만6459주와 맞교환해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은 HS효성 주식 수를 기준 82만1706주(지분율 22.05%)에서 119만882주(지분율 31.96%)로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반면 조 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33.03%

(123만587주)에서 23.12%(86만1411주)로 줄었다. 이번 주식 거래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후 효성그룹의 계열분리에 따라 양대 지주사인 ㈜효성과 HS효성 간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고도 공시했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23.33%),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50.00%), 효성도요타(60.00%) 등 6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 광주글로벌 게임센터는 지난 8월 16~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4'(BIC) 행사에 참여, 공동관을 구성했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공동관에서는 광주 소재 인디게임 개발팀인 ▲VAMM Studio 'Eclipse: The Last Survivors' ▲ZeroZet 'Ohst' ▲프리키즈 '가시' 3개 팀이 참가해, 자사가 만든 게임을 선보였다.

앞서 ZeroZet과 프리키즈는 광주글로벌게임

센터가 참신한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인디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인 '인디스타즈'에 선정됐다. 이들은 지원을 통해 게임의 질을 높였고, 이번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앞으로도 인디스타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개발사의 게임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주 이어 막걸리까지...보해양조 '솔트 레시피'의 진화

세계 3대 소금 넣은 '쿠켓 솔티드...' 3사 협업 제품...여름 히트상품 예고

지역 대표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최근 부드러운 쌀 막걸리에 세계 3대 소금인 '안데스 레이크 솔트'와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첨가한 '쿠켓 솔티드 오리자날'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푸드 커머스 기업 쿠켓과 편의점 체인 GS25와 협업한 이 제품은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선호하는 고품격 막걸리라는 점에서 올해 히트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해양조는 세계 3대 소금을 활용한 '보해소주'를 출시하며 주류업계에 새바람을 불어일으키는데 이어 막걸리에 소금 레시피를 활용해 더욱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구현해냈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던 소주의 쓴맛을 '단맛'으로 대체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해만의 차별화된 접근법을 소주를 넘어 막걸리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품은 각 기업의 강점을 잘 살린 협업의 결과물이다. 보해양조는 세계 3대 소금을 활용한 독자적인 '솔트 레시피'로 주류 업계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기술력을 자랑하며, 쿠켓은 젊은 층의 트렌드와 입맛을 반영하는 감각적인 제품 개발로 유명하다. GS25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쿠켓 솔티드 오리자날'은 MZ세대 사이에서 여름철 새로운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낮은 도수(6도)와 적절한 탄산감을 특징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류로서 매력적이다. 가벼운 목



넘김과 부드러운 질감은 소금빵 등 '단짠' 디저트와 뛰어난 궁합을 자랑하며, 특히 제품에 빵을 적서 먹는 레시피도 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몰이 중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소금이 주는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주류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켓 솔티드 오

리자날'은 전국 GS25 편의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보해양조는 1950년 창업자 고 임광형 회장이 설립한 74년 전통의 주류전문 기업으로,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 대표기업이다. '착한 술,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가장 좋은 재료로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약수의 땅' 전라남도 장성 노령산맥지하 253m의 암반수소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카스와 올림픽 스타 오상욱이 만났다

오비맥주, 새 TV 광고 공개

국내 라이트 맥주 1위 브랜드 카스라이트와 2024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이 만났다.

오비맥주가 카스라이트의 새 모델 오상욱과 함께 저칼로리로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맥주의 매력을 윤택하게 표현한 TV 광고를 선보인다. 오비맥주는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를 카스라이트의 새 모델로 발탁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 자리에 오른 오상욱 선수는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 입담 등 다양한 매력을 뽐내며 대세를 떠올랐다.

이번 신규 TV 광고 '나만의 라이트 타임' 편은 반전 매력의 오상욱 선수를 통해 '제로 슈거', '저칼로리' 등 카스라이트의 가벼운

(Light) 매력을 담아냈다. 영상 속 오상욱 선수는 고된 훈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카스라이트를 즐기며,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털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하루를 신나게 마무리한다. 영상은 "슈거는 제로, 칼로리33% 뺐!". "나만의 라이트 타임!"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마무리된다. 20일 공개된 이번 카스라이트 광고는 TV와 SNS 등의 채널을 통해 확산 가능하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위 라이트 맥주 카스라이트와 파리 올림픽을 빛낸 국가대표 올림픽 스타 오상욱이 만났다"라며, "이번 광고를 필두로 앞으로 오상욱 선수와의 케미를 통해 저칼로리 라이트 맥주의 매력을 다양한 활동과 함께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 숙박할인권 20만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상품은 2만원 할인권을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내달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하는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확 줄인다

집값 상승 주도 수도권 '돈줄죄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높게 적용한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지역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중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폭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 1795억원 더 불었다.

/연합뉴스

온라인 판매 자동차 전조등 램프 절반 불량품

소비자원 20개 제품 시험 평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중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제품 가운데 6개는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크게 낮았다.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

또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85~100와트)이 기준(55와트)보다 높았다. 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투닝용 LED 램프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7개가 불량이었다.

4개 제품은 광도(빛의 밝기)와 색도(빛의 색깔), 광속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각각 광도 또는 광속이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광도가 낮으면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또 색도가 백색이 아니면 우천 또는 안개 낀 날 운전자 본인은 물론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3.64 (+22.27)
↑ 코스닥	787.44 (+9.97)
↑ 금리(국고채 3년)	2.944 (+0.017)
↓ 환율(USD)	1330.00 (-4.00)